

第3國에의 共同進出(플랜트, 資源開發) 方案」,  
인도네시아LNG 案件 等

미쓰비시商事(株) 藤山 知彦 常務執行役員



##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 방안」

2012년 3월 22일

미쓰비시상사(주)

집행임원 후지야마 도모히코

머릿말 (2011년 2월 25일 제12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발표)

### 한일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모습

#### 1 . 제3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 협력

제3국에서의 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일양국이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국이 세계의 인프라 안건을 수주. 인프라 수출을 위해서는 민관(民官) 연대가 필요하며 민간기업간의 협력 외에도 양국정부의 지원이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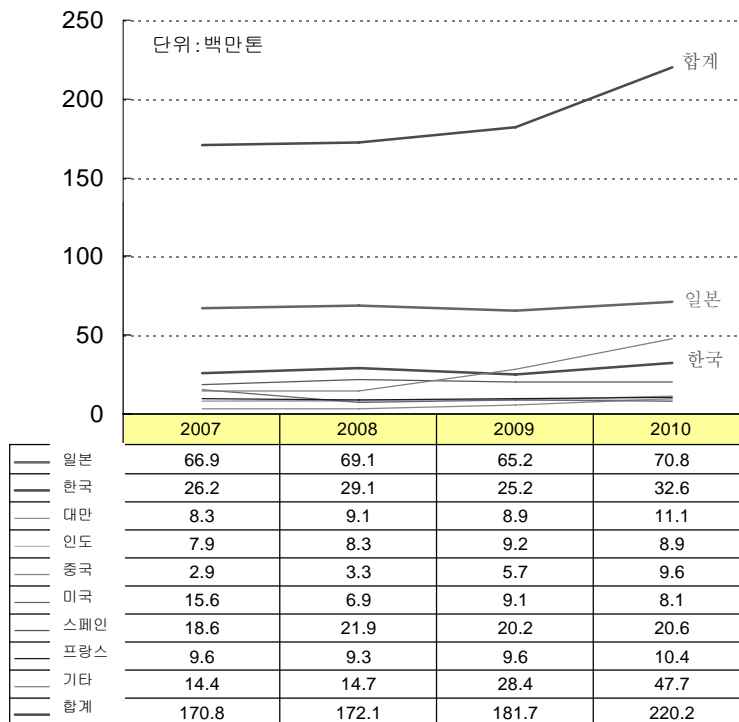
#### 2 . 한일양국의 수요를 합하여 공동으로 자원을 확보

한일양국도 자원수요의 증가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수요를 합쳐서 하나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자원확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더욱 강화하고 권익확보·공동개발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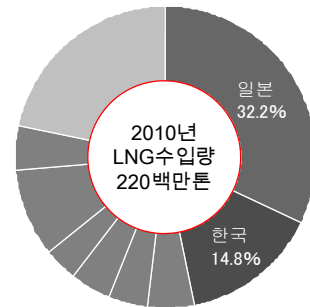
#### 3 . R&D 협력

한일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 발 국제스탠더드 상품을 제조.

## LNG수입량 추이



(자료: GII/GN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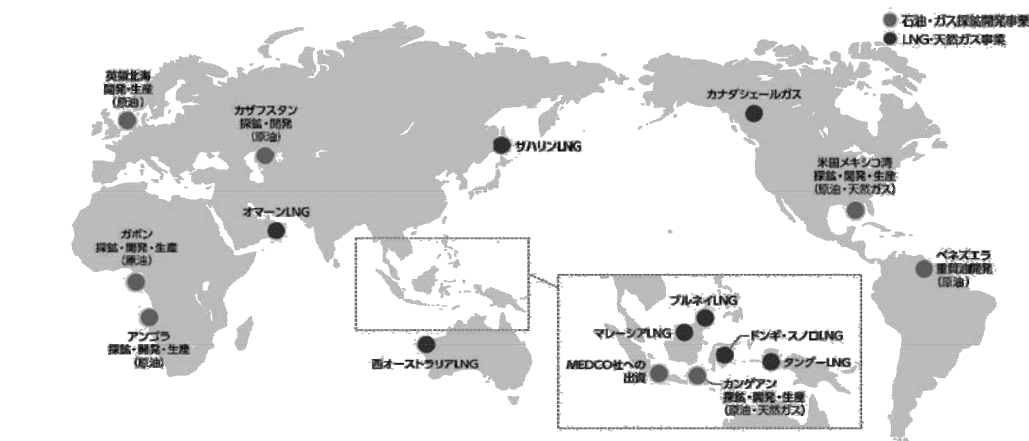


- 한일은 세계제1·2위의 LNG 수입국. 양국의 수입 세어는 약 50%에 달함.
- LNG수요의 보다 증가가 예상
  - 「감(減)원전」, 「탈원전」 흐름
  - 청정에너지원
  - 신흥국의 LNG 도입 증가
    - ⇒ 2015년 3억톤
    - ⇒ 2020년 4억톤

Mitsubishi Corporation

Proprietary & confidential

## 미쓰비시상사의 주요 석유·가스 프로젝트



스노로·토이리광구 개발 (인도네시아)



NWS프로젝트 (호주)



사할린II 프로젝트 (러시아)



Mitsubishi Corporation

Proprietary & confidential

## 미쓰비시상사의 LNG 비즈니스



### LNG 비즈니스의 밸류 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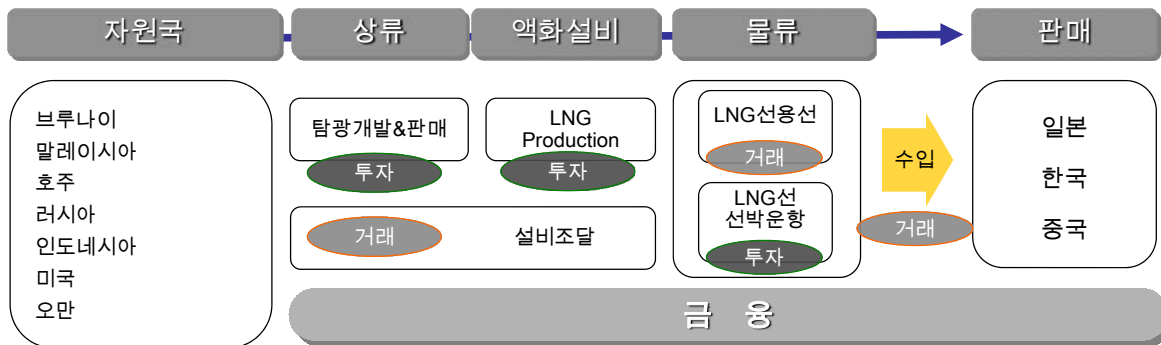
LNG탐광



액화설비



LNG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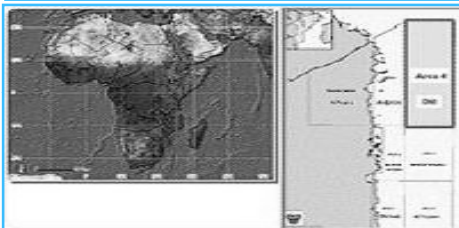


Mitsubishi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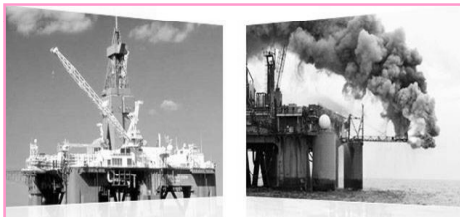
Proprietary & confidential

## 한국의 가스·석유 개발

### 모잠비크 한국가스공사



### 우즈베키스탄 LG상사



### 미얀마 대우인터내셔널



Mitsubishi Corporation

Proprietary & confidential

## 돈가스노로 LNG 프로젝트(인도네시아)

### 일본·인도네시아·한국에 의한 최초의 「올·아시아」 LNG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국유석유·가스회사 「폴타미나사」, 동국 민간최대대기업에너지회사 「메도코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돈가스노로 LNG프로젝트」에 참가.
-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배양해 온 LNG비즈니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대주주 (44.9%)로서 계획에서 플랜트 조업까지 주도.
- 2014년부터 연간 약 200만톤(미쓰비시상사 지분 약 90만톤)의 LNG를 생산하여 일본과 한국에 출하·판매 예정.



Mitsubishi Corporation

Proprietary & confidential

## 캐나다·셸 가스 프로젝트

### 비재래형 천연가스 안건에 대한 대응

#### 캐나다 노부리티츠슈 콜롬비아주



Mitsubishi Corporation

Proprietary & confidential

## 인프라사업 협력

- 신흥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인프라사업  
☞ 양국기업은 아시아, 중동 등을 무대로 힘들게 경합
- 인프라사업→ODA 또는 PPP방식 전개가 시대의 추세  
☞ 특히 민간이 보다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 한일양국이 강점을 공유하여 경쟁력 향상, 리스크 분담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



## 인프라사업과 경합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양국기업 협력에 의한 신사업분야 진출, 경합분야에서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 1. 물(水)사업



- LG전자와 히다치플랜트테크놀러지의 합작에 의한 물사업회사(LG-Hitachi Water Solutions) 설립 (2011년 10월).
- 한국에서 물사업(주로 각종공장의 배수 처리설비와 상수·하수처리시설용 기기제조·판매, 시스템의 EPC(설계·조달·건설), O&M(시설 운전·유지관리), 수처리기술의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적으로는 제3국의 물사업 참가도 검토.
- 히다치의 물사업 경험·노하우와 LG의 가정용정수기, 막 제조에 의한 코어기술 융합.

### 2. 통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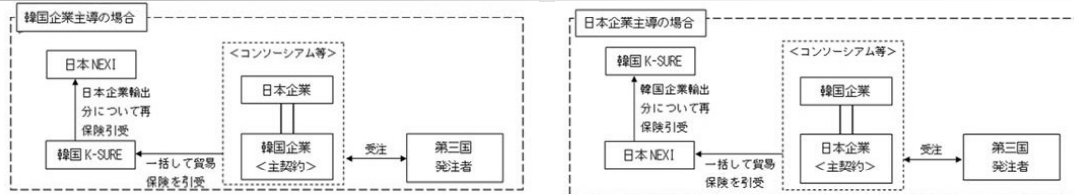


- NTT도코모, 삼성전자, 후지츠키, NEC, 파나소닉이 합작회사 설립에 기본합의 (2011년 12월).
- 시장에서 경합하는 한일휴대전화메이커와 일본의 휴대전화 캐리어의 협력에 의해 휴대전화용 통신제어반도체 개발을 지향.
- 공동으로 미국 퀄컴 의존에서 탈피를 지향하는 것이며 상호의 강점을 공유함과 아울러 경합하면서도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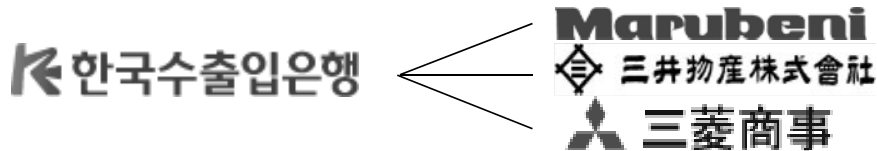
## 제도금융면 등에서의 협력

### 일본무역보험(NEXI)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재보험계약 체결(2011년 2월)



- 일본무역보험(NEXI)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One-stop-shop 재보험계약을 체결.
- 한일양국의 기업이 제휴하여 제3국에서 수주하는 안전에 대해서 1개 창구(원스톱)에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NEXI와 K-SURE에서 한·일의 수출부분 등의 비율에 따라 리스크를 분담.
-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에서의 제휴지원이 목적.

###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포괄적 업무협력에 관한 각서 체결 (2011년 9월)



-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가 각각 한국수출입은행과 각서를 체결.
- 전력, 물, 석유가스, 청정&재생가능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의 정보·의견교환을 목적.
- JBIC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협조용자에 의해 한일간의 인프라 협업을 더욱 지원하게 되기를 기대.

## 한일EPA

### 한일기업의 제휴

글로벌시장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와  
이를 후원해주는 한일양국정부의 역할이 중요.



### 한일EPA의 조기교섭 재개, 조기체결

양국의 민민(民民)협력을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양국의 무역 밸런스만을  
미시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